

우리 농장의 올인·올아웃 운영 방법 및 효과

경 기 양 돈



이 윤 원
(경기양돈 대표)

양돈에 있어 올인, 올아웃은 질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소독의 효율을 높여 만성화된 상재 질병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과학적인 방역 및 환경 관리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그중 특히 분만시는 올인 올아웃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우리 농장의 올인, 올아웃 운영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농장 분만사는 12복을 수용하는 분만칸을 6개의 돈방으로 분리하여 일직선으로 배열하고 각각의 출입문을 공용하는 150cm의 복도를 만들어 돈사출입시 일일이 소독조를 통과하도록 설계했고, 각 돈방마다 온도와 환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동 환기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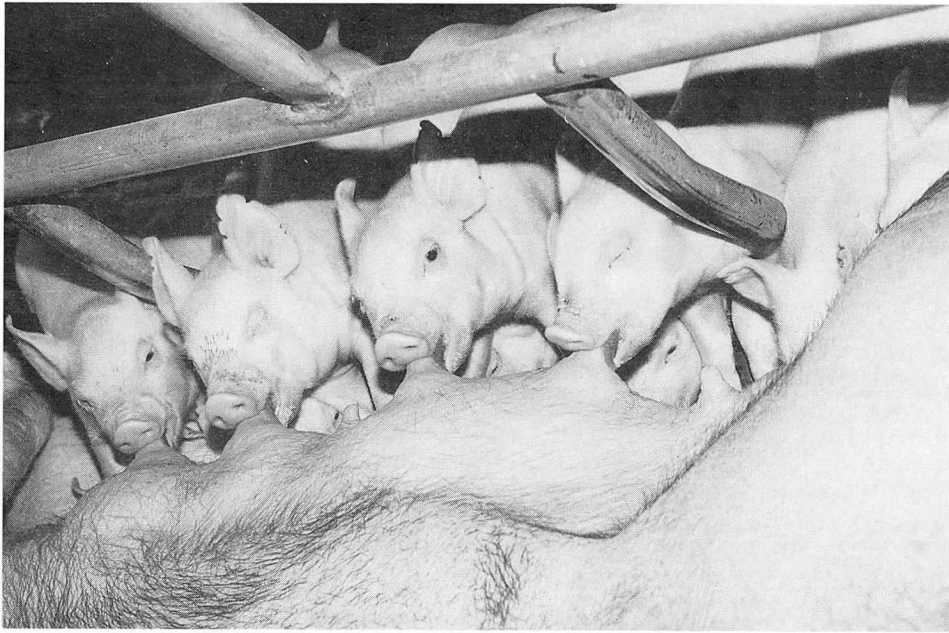
앞 통로의 외벽은 원치로 태양광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했고, 뒷면벽은 30cm 간격의 2중벽과 2개의 2중창을 설치, 보온과 통풍에 만전을 기하

였다. 겨울철에는 출입통로에 히타 1대를 설치하여 충분한 환기에도 각각의 돈방의 온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매주 목요일 이유가 이루어지면 이유된 모돈은 이유사(방목장)에서 3~4일 충분한 운동과 감정 사양으로 체력을 회복시킨 뒤 종부사로 이동, 수 돼지와 접촉시켜 강한 발정을 유도하고, 종부는 화요일 오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빠짐없이 마치게 된다.

이유된 자돈은 이유된 그 돈방에서 1주일간 적응시킨 뒤 자돈사로 이동한다. 이동직후 빈 돈방은 보온등과 먹이통을 제거한뒤 소독제로 돈방 전체를 충분히 적서놓은 다음날 수세를 하고, 수세가 끝난 다음 날 또 다시 돈방 전체를 충분히 소독한다. 이후 5일간 건조시키고, 출입구 뒷 쪽 세척장에서 세척과 소독이 끝난 모돈을 분만실로 입식시키고 입식직후 또 한번 모돈과 돈방 전체를 마무리 소독(4급 암모늄제)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분만사에서 하리를 거의



올인, 올아웃을 시행한 결과 분만사에서 하리를 거의 볼 수 없게 되었고, 평균 23일에 건강하고 균일한 자돈 10두 이상을 이유하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

볼 수 없게 되었고, 평균 23일 이유에 충실하고 균일한 건강한 자돈을 월 평균 10두 이상을 이유하는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되었다. 이는 또한 철저하고 세심한 모돈관리가 뒷받침 되어서 가능한 것이다.

모돈의 분만사 입식직후부터 세심하게 건강상태가 체크된다(유방, 영양상태, 식욕, 체온).

따라서 분만사 관리자는 체온계 휴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함에 있다. 즉, 모돈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고 순조로운 분만을 유도하는 목적이다. 또한 분만 후에 후산배출이 확인되면, 철저하게 자궁관리를 하여 준다. 분만 지연 등의 난산인 모돈에 대해서는 적극적 방법으로, 자궁내 세척, 현탄액 주입, 주사 등 자궁상태와 염증유무에 따라 적절하고도 확실한 처방을 하고 있다. 이는 수태율을 높이고 산자수를 높이는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와, 아직도 육종과 종부는 20여년 장인정신으로 정진한 철저하고 탁월한

감각으로 일일이 직접 관여하고 돈방관리자의 세심하고 정성어린 수태지 관리와 모돈관리 특히 후보돈 때부터 엄선된 선발과 방목에서 지체와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길러준뒤 체중이 130~135kg정도로 충분히 발육시켜 백신과 구충이 끝나면 초종부에 들어간다. 그 결과 평균 6~7산차 정도는 무리없이 제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수태율 95% 이상, 평균 분만두수 12두 이상의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품질의 우수한 종돈을 생산, 최고의 종돈장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추진력, 전직원의 단합과 자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맡은 일에 자기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있는 한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성적을 내리라 확신한다. 이제는 기르는 양돈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양돈으로 UR 등을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키울 때라 생각한다.